

주간 증시 포커스

코스피 2400포인트 박스권 가능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주목
실적 개선 기대 금융주 관심

코스피지수는 지난주 0.5% 하락한 2379.87에 마감했다. 6월말 2400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북한의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 소식이 변동성이 높아지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7개월 연속 상승하며 2400선을 돌파한 후 조정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발 악재가 때마다 터져 지수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다. 하지만 한국증시가 북한 리스크에 내성을 꾸준히 키워온 만큼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 한 북한발 코스피지수 조정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7월 2분기 잠정실적으로 매출액 60조원과 영업이익 14조원을 발표했다. 시장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영업이익 13조원을 넘어서며 기대에 부응했다. 실적발표이후 삼성전자는 240만원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전일보다 0.42% 하락한 239만3000원으로 마감하였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사상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현재의 높은 이익은 과거 사이클을 살펴보면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산업사이클 흐름의 정점모습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추가적인 동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흐름은 반도체 호황이 공급 사이클상 호전이기보다는 빅데이터를 위한 서버용 반도체 성장과 스마트폰 고도화와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창출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번주는 13일(오전 10시) 열리는 한국은행 7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주목해야 한다.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상반기는 반기별로 역대 5번째로 큰 수출금액을 기록하며 국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또한 지난 6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하반기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면서 한-미 금리 역전과 이로 인한 외국인의 국내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번 7월 금통위는 하반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시장은 6월이후 이어지고 있는 코스피지수 2350~2400포인트의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며 2400포인트 안착을 위한 물량소화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말 LG전자는 실적발표 이후 삼성전자와 달리 이틀간 7% 넘는 하락세를 보이며 5월 중순 이후 최저가로 하락했다. LG전자의 하락을 두고 IT의 상승추세를 우려하는 시각과 함께 코스피를 끌고 갈 주도주가 IT주에서 금융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상반기 상승폭이 컸던 IT 주의 실적개선의 둔화가능성이 커진다면 금융주는 금리인상의 큰 흐름을 타고 실적개선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IT와 금융주는 시장 주도주 요건을 모두 가지고 있어 두 업종간 흐름을 이용한 중 단기매매도 좋아 보이며 지금은 금융주에 주목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은 3월이후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10월 카카오키러시 이전 시장 악재와 지난주 기관이 코스닥시장에서 2200억원의 순매도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코스피지수의 상승추세가 지속되면서 코스닥시장의 저가매리트가 커지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 코스닥 수급 변화가 없다면 상승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전남 수산물, 해외수출 효자노릇 '톡톡'

올 5월까지 김 4285만달러 수출 ... 2년새 두배 늘어
전북 1438만달러 27%, 미역 1225만달러 45% 증가

전남 수산물이 우리나라 해외수출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전남 수산물의 해외수출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광주·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전남지역 수산물 수출액은 1~5월 누적액 기준 ▲2015년 5576만 5000달러 ▲2016년 6586만 2000달러 ▲올해 5월 4285만 7000달러로 2년 만에 58.2%(3245만4000달러)가 증가했다. 이는 수출 효자품목인 '김'을 중심으로 부가가

치가 높은 수산가공품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산물 수출이 원료용 냉동수산물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가공제품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표적인 가공제품으로 꼽히는 김의 수출실적만 봐도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전남에서 생산·가공돼 수출길에 오른 김은 ▲2015년 5월 2044만 달러 ▲2016년 5월 2719만 2000달러 ▲올해 5월 4285만 7000달러로 2년 사이 두 배의 수출액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나라 수산물 해외수출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전북과 미역도 '한몫' 거두고 나섰다. 같은 기간 전북은 2015년 1129만 2000달러에서 올해 1438만 2000달러로 27.4% 늘었고, 미역은 같은 기간 847만 4000달러에서 1225만 7000달러로 수출액이 44.7%나 증가했다. 지난해 황백화 현상과 녹조로 인한 전북폐사 등 작화·양식 부진을 털고 생산량이 대폭 늘어나는 등 공급량이 안정화를 찾아가면서 수출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전남 수산물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 전체 수산물 수출 실적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9월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10억 달러에서 12.1% 증가한 11억 2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수출 실적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이다. 특히, 김은 주요 생산국인 중국과 일본이 작황 부진을 겪고 있는데다, 국내산 김의 중국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게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러시아와 베트남 등 신흥국 시장에서의 수요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호황이 지속될 경우 5억 달러 수출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수산물 수출 실적이 역대 2위를 달성하는 등 수산물 수출 지원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일본, 미국, 대만, 베트남에 수출지원 센터를 추가로 개소해 국내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수산물 수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농협 산수동지점 신축 이전 기념식. 광주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최근 광주농협(조합장 한정섭) 산수동지점 개점식을 진행했다. 광주농협은 과거 산수오거리에 있던 산수동지점을 지산사거리로 자리를 옮겨 건물을 신축해 확장·이전했다. <농협광주지역본부 제공>

금어기때 활낙지 공급할 축양기술 개발한다

전남도가 낙지의 연중 공급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량축양기술을 연구한다. 어획된 낙지를 축양시설에서 얼마 동안 길러 금어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원장 최연수)은 갯벌의 대표 품종인 낙지의 연중 공급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축양 조건과 서로 잡아먹는 공식 방지 방법, 대량 축양 기술을 연구한다고 9일 밝혔다. 낙지는 타우린과 무기질, 아미노산 등이 함유돼 기력 회복에 좋은 보양음식이다. 맨손어업, 통발, 연승어업을 통해 전남에서 395t을 생산, 1118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품종이다. 창업 비용

이 적게 들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귀어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그동안 없었던 낙지 금어기가 6월21일부터 7월20일까지 한 달 동안 시행되면서 활낙지를 선호하는 국내 수요자들에게 이 기간 낙지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 최근 어획량이 감소 추세인데다 해양 변화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해 축양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최대 3.0%p 추가 금리 지원 '행복이음패키지' 홍보

농협 전남본부.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묵)는 9일 도농상생과 농가소득 증대 지원을 위해 범농협 CEO 및 전 직원이 '행복이음패키지' 통장에 가입하고 홍보에 나섰다. <사진> 이 상품은 '도시와 농촌의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농협이 판매금액에 비례해 '아름다운 동행기금'을 조성, 이를 통해 농업인 고객에게 최대 3.0%p의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농가소

득 증대 상품이다. 현재까지 전남지역 행복이음패키지 가입률은 지난달 14일 출시 이후 1만5800좌에 1900억원에 달하는 상태다. 도시와 농촌의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기 위해 행복이음패키지 추진 분위기가 조성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농협측의 설명이다. 이흥묵 본부장은 "행복이음패키지 상품은 농협의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농협 상호금융의 따뜻한 금융의 실천에 최적의 상품"이라며



"지속적인 릴레이 가입 캠페인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24시간 OPEN!!
참숯가마
맛의향연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